

SPORTS

P&P

SPORTS PEOPLE & PLAYER

12,1

신년 합본호
2015

■ INTERVIEW

선후배가 쌓아가는 오늘의 운동 일기

- 숙명여대 배드민턴 동아리 '민턴럽' -

■ FACEBOOK EVENT

KIMONY, 올해도 잘 부탁해!

- 2016년 새해 소망 메시지 -



숙명 여대 배드민턴 동아리 '민턴럽'

선후배가 쌓아가는 오늘의 운동 일기

숙명 여대 배드민턴 동아리 '민턴럽'

글 : 박시원 사진 : 전계현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는 스포츠, 하지만 런닝, 배드민턴 등 여성 생활체육 동호인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학생들이 부담 없으면서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만한 것이 또 있을까. 배드민턴에 대한 기술적 지식함양 및 능력 향상을 위해 모인 여자 배드민턴 동아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자들의 끈끈한 우정과 친목까지 덤으로 얻어간다는 숙명여대 배드민턴 동아리 '민턴럽'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본다.

하루 수업을 모두 마친 저녁, 교내 학생들이 귀가를 하거나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갈 시간임에도 숙명여대 다목적 체육관에는 10명 남짓한 여학생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여학생들의 동아리 '민턴럽'은 학기 중 바쁜 시간을 쪼개 배드민턴 실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INTERVIEW

K : 간단한 동아리 소개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동아리로 2004년 창단되어 배드민턴 실력 향상과 친목을 다지고 있는 민턴럽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대회도 주최하고 체육관이 따로 있었는데 현재는 임시 체육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의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인원수가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K :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한 이유?

배드민턴은 생활 체육이니까 평소에 가볍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농구, 축구보다 여자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하고요. 고등학교 때 수업시간에 배드민턴을 배우기도 하고 선배들중에 친해지고 싶은 언니 있으면 그 언니보고 들어오기도 해요 (웃음)

K :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대학마다 배드민턴 동아리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얼마전 9월에는 누리 연합회라는 대학생 배드민턴 연합에서 연결해줘서 동덕여대 배드민턴 동아리와 함께 시합을 했어요. 연고전-고연전처럼 동숙전이라고 해서 만든 대회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여대가 맞붙다보니 시합을 하다보면 경쟁심이 생겨요, 실력과 인원이 비슷했는데 동덕여대에서 코치님이 바뀌고 나서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도 오기가 생기고 후배들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과 특성상 승부욕이 내재된 아이들이라서 안그래도 지기싫어하는 성격에 라이벌이 생겨서 열심히 하다보니 서로에게 발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긴 했지만 내년 대회에서는 꼭 이기고 싶어요.

K : 동아리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

동아리 지원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월 5천원씩 회비를 걷고 있지만 기본적인 셔틀록, 네트만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야해요.

그립은 생각보다 많이 교체하기 힘들고 다들 부상이 많아서 보호대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손목이나 발목이나 무릎에 통증이 많이 오고 있어서 보호대를 하고 경기를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웃음)



K : 동아리 자랑 한 마디?

과 동아리중에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름이 '민턴럽'이 아니에요. 하루에 두 시간정도 게임하다보면 저절로 친분도 쌓이고 즐겁게 운동 할 수 있어요. 운동끝나면 가끔 회식도 하는데 먹성이 좋아서 고기 2인분 이상씩은 거뜬하게 먹어요. 그만큼 서로 편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랍니다.



K : 앞으로의 목표?

학기 중에는 코치님이랑 수업 시간을 맞춰야 해서 일주일에 몇 번 레슨을 못 받았어요. 이번 겨울 방학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서 동덕여대에 가서 같이 레슨받고 게임도 하면서 운동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대회에 보면 각자의 승점을 모아서 단체팀 수상도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해서 단체팀 우승을 받는 게 가장 기쁠 것 같아요.



키모니, 올해도 잘 부탁해!

2016년 새해 소망 메시지

키모니와 함께 보낸 2015년!

다가오는 2016년에는 다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키모니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해온 동호인들의 새해 소망 메시지입니다!

올해도 키모니와 함께 건강한 운동 하세요^^



김민지

사랑하는 남편이 요즘 탁구를 시작했어요!
키모니 양말이 정말 편하고 짤짤해서 운동할 때 신기에 딱이라고
너무 좋아하네요.
연말,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부탁해~!!! ㅎㅎ



천윤희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 창동하게 된 키모니 손목 밴드!
정말 좋고 만족스러웠어요!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열심히 일한만큼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있겠지요!!



조병선

새해에도 키모니와 함께
복상 없이 재미나게 운동 파이팅!!!



임도현

키모니그립

솔로탈출해서 장가가자!
허리디스 재발 두번 고생했다 좀 건강해지자~



노일선

제가 올해 초부터 베드민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지인들께서 추천해 주신 키모니 양말!! 신축성과 활동성,
100% 면소재라 넘 좋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양말 신고는 운동 못해요!!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운동 할려구요~~
2016년도 키모니의 더 멋진 제품들!! 기대할게요~

kimony
SINCE 1977